

# 칠레 대선: 칠레판 ‘명백한 운명’, 그리고 더 명백해진 칠레의 운명

우 석 균\*

지난 3월 11일 세바스띠안 삐네라가 칠레 대통령에 취임했다. 삐네라는 작년 12월 13일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뒤, 금년 1월 17일 열린 결선투표에서 51.6%의 득표율로 꾀세르파시온 후보 에두아르도 프레이에게 222,742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로써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당을 주축으로 중도좌파 노선을 표방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집권한 꾀세르파시온 시대가 막을 내렸다. 꾀세르파시온 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승패를 갈랐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우파 후보의 집권이 삐노체프 퇴임 후 처음이며,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한 것은 이보다 훨씬 전인 1958년이 마지막이었다는 점이 이목을 끌었다. 라틴아메리카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삐네라의 승리가 좌파의 퇴조와 우파의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인지가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삐네라의 승리는 우파의 승리가 아니라 시장(市場)의 승리이자 기업가의 승리이다. 삐네라가 비록 1989년에 상원의원에 당선된 오랜 이력의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한 인물이다. ‘칠레의 기적’과 함께 야기된 경제지상주의, 그 ‘기적’이 야기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오래 전부터 예정해 놓은 명백한 운명이 실현된 것이다. 그리고 기업가 삐네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칠레의 운명은 더욱 명백해졌다. 지난 수십 년과 마찬가지로, 아니 더 노골적으로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 I. 칠레판 명백한 운명

우파의 승리는 꾀세르파시온의 장기집권에 따른 국민들의 싫증, 대선후보 인물난, 단일후보 도출 실패에 따른 지지층의 혼란 등에 따른 반사이익이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이 난무한다. 2006년 대선의 결선투표에

---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

서 베네라에게 승리한데다가 80%를 웃도는 지지도로 대통령 임기를 마친 미첼 바첼렛이 연임 제한 규정에 묶여서 다시 입후보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면, 참신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전직 대통령 에두아르도 프레이(1994~2000년 집권)가 꾀세르파시온 후보가 아니었다면,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하기는 했으나 떠오르는 정치인인 엔리케스 오미나미가 꾀세르파시온 후보였다면, 오미나미가 무소속으로 대선에 뛰어들으로써 꾀세르파시온 지지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하는 등등의 가정이다.

하지만 우파의 승리가 결코 반사이익 때문만은 아니다. 우파의 집권 가능성은 상존해 있었다. 1999년 대선에서 꾀세르파시온의 리카르도 라고스와 우파 단일후보 호아킨 라빈의 표 차이는 불과 3만 여 표였고, 이듬해 1월 결선투표에서 라고스는 이번 베네라보다 적은 51.3%의 득표율로 겨우 당선될 수 있었다. 2005년 대선에서는 우파가 단일후보를 내는 데 실패하여 베네라와 라빈이 모두 입후보했지만, 바첼렛은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여 이듬해 결선투표를 거쳐야했다. 꾀세르파시온과 우파의 승부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근소한 차이로 갈리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바첼렛의 임기 말 높은 지지도는 개인적 인기이지 결코 꾀세르파시온의 인기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의 집권이 지연된 데에는 칠레 국민 사이에서 베노체프 시대에 대한 증오나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베네라가 극우와 다소 거리를 두는 탈정치 행보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1999년부터 여러 차례의 박빙의 승부는 민주화 특수도 상당히 힘을 잃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베노체프를 둘러싼 쟁점이 상당히 희석된 이상 꾀세르파시온과 우파를 나눌 별다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경제 부분에서는 꾀세르파시온이 베노체프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양측의 운명을 가를 별다른 차이가 없으니 꾀세르파시온과 우파가 계속 팽팽한 승부를 거듭했고, 따라서 우파가 한번쯤 집권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베네라의 승리를 우파의 승리라고 규정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

칠레 대선은 시장의 승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는 소위 ‘칠레의 기적’과 함께 잉태된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 실현된 것이다. ‘명백한 운명’이란 1845년에 뉴욕의 저널리스트 존 오설리번이 처음 사용한 말로, 미합중국에 신의 뜻에 따라 북미 전역을 지배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칠레인들 사이에도 이런 식의 쇼비니즘이 존재한다.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예외적인 국가라는 ‘칠레 예외주의(excepcionalismo chileno)’이다. 가령, 1864년 정치가 안토니오 바라스는 칠레가 독립 후에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달리 안정적인 헌정 질서와 정치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을 들어 칠레 예외주의를 주장했다.<sup>1)</sup> 베노체프 쿠데타로 헌정 질서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대체로 칠레인들 사이에서 공유된 믿음이었다. 칠레 예외주의의 레퍼토리는 또 있다. 칠레와 영국을 동일시하는 믿음이다. 이는 19세기에 영국인들이 당시 남미 태평양의 주요 항구 발파라이소에 진출하여 해운, 철도, 무역, 금융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영국을 칠레의 발전 모델로 여기게 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믿음이다. 이들은 칠레와 영국의 국민성이 비슷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칠레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예외적인 국가, 순조로운 발전이 가능한 국가임을 과시하려 했고, 그 유사함은 사막과 안데스와 바다로 둘러싸인 칠레와 섬나라 영국의 지리적 고립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sup>2)</sup>

이런 식의 칠레 예외주의가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비현실적인 것인지는 따져볼 구석이 많다. 하지만 1990년대에 새로운 레퍼토리를 갖추고 다시 고개를 든 칠레 예외주의는 어느 정도 현실적 토대를 지니고 있었고, 또한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하면서 예전의 예외주의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그 현실적 토대란 바로 밀턴 프리드먼이 예찬한 ‘칠레의 기적’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 오직 칠레만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했으니 칠레 예외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 당연했고, 그런 자부심이 존재하니 ‘칠레의 기적’이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하며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점령할 수 있었다. 베르나르도 수베르카소는 1990년대 칠레 사회에서 “다른 나라 칠레, 승리하는 나라 칠레, 현대적인 나라 칠레(Chile país diferente, Chile país ganador y Chile país moderno)”라는 예외주의적 수사들을 포착했고,<sup>3)</sup> 토마스 물리양도 “재규어 칠레, 퓨마 칠레, 선도자 칠레, 발전된 칠레(Chile jaguar, Chile puma, Chile líder, Chile desarrollado)”<sup>4)</sup>라는 수사들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1) Universidad Andina Simón Bolívar, *Historia de América Andina, Vol. 5 Creación de las repúblicas y formación de la nación*, Quito: Editorial Ecuador F.B.T. Cía. Ltda, 2003, p. 260.

2) Isabel Allende, *Mi país inventado: un paseo nostálgico por Chile*, New York, NY: Rayo, 2003, p. 27 & p. 60.

3) Bernardo Subercaseaux, *Chile, ¿un país moderno?*, Santiago: Ediciones B, 1996, p. 61.

4) Tomás Moulian, *Chile actual: anatomía de un mito*, Santiago: LOM, 1997, p. 98.

지적인 바 있다.

이처럼 칠레의 1990년대는 경제발전에 한껏 고취되어 있었다. 이는 삐노체프가 퇴임 후에도 일정한 지지자들을 지닐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고, 과거사 문제가 점점 희석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를 낳았고, 경제 정책의 차이가 없는 콘세르파시온과 우파의 지지율이 별 차이가 없는 한 이유가 되기도 하다. 즉, 1990년대의 칠레 예외주의는 경제지상주의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아니발 뻬토의 지적처럼, 삐노체프 이전 시대가 실질적인 경제 발전이 부진한 가운데 정치가 과잉된 시대였다면, 그 이후에는 정치가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관심을 끌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시장경제라는 특정 경제 모델만이 칠레 사회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다.<sup>5)</sup> 그래서 심지어 삐노체프 시대에서 민선 정부의 이행기가 ‘독재에서 민주화가 아니라 ‘국가에서 시장’으로의 이행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주장도 심심찮게 대두되었다.<sup>6)</sup> 그래서 삐네라 같은 기업가의 당선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이 경제성장으로 환원되는 사회,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에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당선되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운명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배후에서 실질적인 통치를 하던 시장이 국가를 접수한 셈이다.

## II. 기업가가 애국자인 시대

삐네라는 남미 최고의 항공사 란칠레(Lan Chile), TV방송국 칠레비시온(Chilevisión), 칠레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프로축구 팀 콜로콜로(Colo Colo) 등을 소유한 칠레 3위의 부호이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취임 전날인 3월 10일을 기준으로 22억 달러의 자산가이자 세계 437위의 부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칠레에는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일까? 당연히 존재한다. 삐네라 자신이 이를 의식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대대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콜로콜로를 제외한 모든 회사의 지분 정리를 약속하고 또 실행 중에 있다. 그러나 삐네라를 ‘칠레의 베를루스꼬니’로 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네라 같은 대부호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5) Aníbal Pinto, 재인용, in Manuel Antonio Garretón (coordinador), *Cultura y desarrollo en Chile: dimensiones y perspectivas en el cambio de siglo*, Santiago: Editorial Andrés Bello, 2001, pp. 23-24.

6) 가령 다음을 참조하라. Sergio Villalobos-Ruminott, “Modernidad y dictadura en Chile: la producción de un relato excepcional,” *A Contra Corriente*, Vol. 6, No. 1, Fall, 2008, p. 46.

맥락에서 명백한 운명이었다. 신자유주의 모델 도입 후의 급진적인 사회문화적 변화가 명백한 운명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페노체프 시대의 사회문화적 변화는 1960년대에서 살바도르 아옌데 시절까지의 정치적 급진화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이다.<sup>7)</sup> 경제 발전으로 본격적인 소비사회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의 시민이 등장한 것도 변화의 한 예이다. 물리양이 말하는 ‘신용카드 시민’의 출현이다.<sup>8)</sup> 고전적인 의미의 시민, 즉 참정권이나 정치적·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는 시민 대신에 소비주의의 포로가 된 시민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묘하게도 페네라는 페노체프 시대에 신용카드 사업으로 부를 쌓아 정계 진출에 성공한 인물이다. 신용카드 시민의 출현이라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편승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정점은 기업가를 애국자로 여기게 된 풍토이다.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들이 칠레의 발전을 이끈 구국의 영웅으로 격상된 것이다.<sup>9)</sup>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예가, 국내에도 번역된 이사벨 아옌데의 소설 『운명의 딸』(1999)과 『세피아빛 초상』(2000)에서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여성 빠울리나이다. 19세기 중반 미국의 골드러시 때 빠울리나는 해운업에 종사하면서 농산물과 과일을 캘리포니아에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고, 미국의 대륙횡단 열차 건설 사업을 성공리에 마쳐 국위를 선양하고, 보르도 포도 품종을 몰래 들여오으로써, 1세기 뒤인 1990년대 칠레의 기적의 한 주역이었던 포도주 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애국 기업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두 작품의 전면 격인 『영혼의 집』(1982)이 토지와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폭력적 전횡을 일삼은 과두지배 계층을 페노체프 쿠데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뜻밖의 인물 설정이다.<sup>10)</sup> 이처럼 기업가를 애국지사로 바라보는 사회문화적 시각 변화가 정경유착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페네라를 집권의 길로 이끌었다.

그러나 페네라의 당선을 구국 영웅의 탄생으로만 미화시킬 수 없는 일련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아마도 지난 2월 27일 발생한 50년 만의 최악의 지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시각과 복구 계획이야말로 기업가 대통령의 문제점을

7) *Ibid.*, p. 17.

8) Tomás Moulian, *Op.cit.*, p. 106.

9) Jorge Larráin, *Identidad chilena*, Santiago: LOM, 2001, pp. 162-172.

10) 출고, 「이사벨 아옌데의 3부작을 통해 본 이산과 신자유주의」, 조돈문·임상래·이내영 편 『세계화와 라틴아메리카의 이주와 이민』, 오름, 2005, pp. 350-355.

날카롭게 드러낸 예일 것이다.

### III. 십장들은 물러나고 주인이 되돌아오다

지난 5월 21일 페네라는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했다. 칠레가 1879년 이끼계 전투에서 페루에 승리한 기념일로, 칠레 대통령이 매년 국정연설을 하는 중요한 날이다. 3월에 취임한 페네라로서는 집권 후 자신의 청사진을 공식화시키는 첫 대 국회 연설이며, 대지진과 뒤이어 덮쳐 온 쓰나미로 초토화된 끈셈시온 일대의 재건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여소야대 국회에 협조를 부탁해야 할 상황이었다. 대선 행보 때부터 탈정치를 표방하고 경제에 올인할 것을 공약했으니, 첫 국정연설도 경제 목표 일색이었다. 요약하자면, 페네라는 연평균 6%의 경제성장, 5년간 일자리 100만 개 창출, 현재 14,000달러인 1인당 국민소득을 2015년에 22,000달러로 끌어올려 남유럽 국가들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영농과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물론이다.

페네라의 목표가 너무 장밋빛 전망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즉각 뒤따랐다. 국민총생산의 17%를 차지하는 끈셈시온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성장률 둔화, 그 복구에 막대한 재원을 소진해야 하는 현실, 전 세계적인 더블딥을 우려할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 여소야대 국면이 필연적으로 야기할 한계 등을 짚어지고 페네라가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페네라가 퇴임 시에 자신의 목표를 다소 밀도는 성적표를 내민다 해도 크게 비난할 사람이 없다. 대지진과 외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IMF는 2010~2014년 5년 동안 칠레가 연평균 4.9%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201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페네라가 특별한 실정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괜찮은 성적표를 남길 것이다. 더구나, 지진과 쓰나미 피해는 너무나 훌륭한 변명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된 목표를 설정했다가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낭패를 볼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진과 쓰나미 피해 복구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다. 페네라는 자신의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한 ‘재건과 기부혜택 법(Ley de

Reconstrucción e Incentivo a Donaciones)’의 원만한 처리를 부탁했다. 법안 통과 여부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521명의 사망자, 거의 50만 호에 달하는 주택 피해, 200만 명의 이재민, 300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액을 남긴 50년만의 최악의 대지진이 남긴 상처가 너무나 커서, 여론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적인 고통 분담이 필요한 상황에서 3년간 법인세 증세를 감수해야 할 기업들의 기여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비판은 그렇다 치고, 피해 복구를 주로 대기업, 그것도 현 내각 인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디막(Sodimac), 이지(Easy), 콘스트루마트(Construmart) 같은 기업들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건 사업이 결국은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현 외무부 장관 알프레도 모레노가 소디막의 지주회사인 팔라베야(Falabella)의 CEO를, 현 광업부 장관 로렌스 골보르네는 지주회사 센코수드(Cencosud)의 계열사인 이지의 CEO를 역임했으며, 칠레 경제의 중추인 국영구리회사(CODELCO) 사장 헤라르도 호프레는 콘스트루마트의 이사이기 때문이다. 대선 직후 베네라의 승리를 알린 어느 신문의 의미심장한 헤드라인처럼 “십장들은 물러나고 주인이 되돌아온”<sup>11)</sup> 것일까?

#### IV. 더욱 명백해진 칠레의 운명

돌아온 주인이 주인노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대지진에 대한 새 정부의 대처 방식을 보면, 선량한 주인이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대지진이 뻬노체프 시대부터 칠레가 추구한 신자유주의 모델의 치부를 드러낸 ‘사회적 지진’으로 규정되고 있는 가운데,<sup>12)</sup> 새 정부는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모르는 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진 발생 3일 후 콘셉시온 일대에서 ‘약탈’과 ‘소요’가 발생했다. 콘셉시온 시에서는 굳게 잠긴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난입한 시민들이 식료품은 물론이고,

11) Mauricio Becerra R., “Se van los capataces y vuelve el patrón,” *El Ciudadano*, <http://www.elciudadano.cl/2010/01/18/se-van-los-capataces-y-vuelve-el-patron/>, 2010-01-18.

12) Roger Burbach, “Chile’s Social Earthquake,” *Global Alternatives*, <http://globalalternatives.net/node/112>.

구두, 의류, 플라즈마TV, 휴대폰까지 카트에 실어내 갔다. 경찰만으로는 이를 막기 힘들어서, 결국 1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이 투입된 후에야 안정을 되찾았다. 구호품이 지진 발생 3일 후에야 당도하기 시작하면서 굶주린 이재민들이 일으킨 ‘소요’였다. 구호품이 1주일 후에야 도착, 배포되기 시작해서 구호품보다 군인을 먼저 본 지역도 많다. 대다수 언론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재민을 굶주리게 하고, 이들을 ‘약탈자’로 돌변시킨 임기 말 미첼렛 정부를 질타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을 범질서를 파괴한 폭도, 범죄자, 룸펜 등으로 규정했다. 정부와 ‘점잖은’ 사람들 역시 ‘약탈자’들을 그렇게 규정했다. 이들이 식료품 이외의 물건에도 손을 대었으니 언뜻 보면 반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혼란을 틈타 한몫 챙기려는 이들도 틀림없이 일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굶주림도 사리사욕도 ‘약탈’ 원인의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쌓인 이재민들의 분노가 작용했다.

지진이 일어난 직후인 3월 1일 브렛 스티븐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어떻게 밀턴 프리드먼이 칠레를 구했나」라는 칼럼을 썼다. 그는 아이티언이 수숫대로 만든 집에서 살았다면, 칠레인은 벽돌집에 살아서 대참사를 면했다는 비유를 통해, 아이티보다 칠레가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본 것을 밀턴 프리드먼의 공으로 돌렸다. 칠레의 시카고 보이스트들이 경제를 발전시킨 덕분이라는 말이다. 또한, 칠레의 건축 법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도 경쟁에 입각한 시장 논리 덕분이라고 지적했다.<sup>13)</sup> 칠레의 지진이 진도 8.8인데 반해, 2010년 1월 12일 발생한 아이티 지진은 진도 7임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만 수십 만 명에 이르렀으니 이런 예찬이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이런 시각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최초의 지진 관련 건축 법규를 제정한 것은 삐노체프 시대가 아니라 1972년 살바도르 아옌데의 사회주의 정부였다. 그리고 삐노체프 시대를 지나 1990년대 민선정부 시절에 법규가 더 강화되었다. 삐노체프와 예의 시카고 보이스트들은 한 일이 없는 셈이다. 둘째, 민선정부 시절의 법규 강화가 효력이 있었는지도 논란거리이다. 칠레의 언론정보·조사센터(CIPER: Centro de Investigación e Información Periodística)에 따르면, 지진 진원지와 멀리 떨어진 산피야고 광역권의 경우 지난 15년간 건축된 주택단지와 고층건물

13) Bret Stevenson, “How Milton Friedman Saved Chile,” *The Wall Street Journal*,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48703411304575093572032665414.html>, 2010-03-01.



23개소가 지진 때문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한다. 건축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탓이다. 지진으로 파괴된 집 대부분이 어도비 벽돌이나 기타 부실 건축자재로 건축된 것이었다.<sup>14)</sup> 경쟁의 원리가 오히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 셈이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부실한 주택들이 칠레의 대규모 사업과 산업에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을 공급하면서 확산된 빈민가에 주로 위치해 있었다는 점이다. 끈셈시온 일대의 이재민 중 다수도 바로 이런 집들, 즉 ‘칠레의 기적’과 함께 양산된 부실 주택에 살던 이들이다. 재난 3일 만에 굶주린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되었다는 사실도 커다란 문제이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과 필적하는 재규어 혹은 퓨마라는 자부심이 무색하게도 칠레 국민의 14%는 절대빈곤층이다. 3일을 버틸 식량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약탈자’ 행렬에 길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백화점 내지 대형 마트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경쟁과 규제완화로 작은 상점들이 대거 사라졌으니, 충분한 식량을 구할 곳은 그런 곳들 밖에 없었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 마트들은 지진이 나자마자 일제히 문을 걸어 잠근 상태였다. 이재민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급기야 식료품 이외의 것에도 손을 댄 것이다. 이재민들을 자연재해의 피해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의 피해자로, ‘약탈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자로 볼 수도 있는 이유이다.

새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야기한 소득불균형, 소득불균형의 결과인 사회적 지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인식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새 정부는 대재난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내무부 산하 국가비상실(ONEMI: Oficina Nacional de Emergencia)의 대대적인 재편을 천명했다. 새 정부에게 끈셈시온 지진은 사회적 지진이 아니라 여전히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재난 후 대처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는 신속한 주택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자리 앞선도 약속했다.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정책과 부실한 주택 양산을 방지할 정책을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원상회복만 되면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재건과 기부혜택 법’은 2012년까지 대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법인세 증세, 적자제정,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을

---

14) Roger Burbach, *Op.cit.*

통한 재원 조달, 기부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 등을 약속하고 있어서 종합선물세트 같은 특별법이다. 하지만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고, 고통분담과 기부라는 ‘인도주의’가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민영화나 국유재산 매각 등의 방침은 새 정부가 지진과 쓰나미를 또다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의혹만<sup>15)</sup> 불러 일으켰다.

새 정부의 지진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식을 보건대 칠레의 운명은 더욱 명백해졌다.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 기업가가 애국자인 시대에 기업가의 당선이 명백한 운명이었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이 계속되고 경제성장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된 현실이 지속되리라는 것도 자명한 운명이다.

---

15) Andrés Figueroa Cornejo, “Los planes de Piñera contra los intereses del pueblo chileno,” *Agencia Latinoamericana de Información*, 2010-04-19, <http://alainet.org/active/37430>.

## 참고문헌

- 우석균, 「이사벨 아엔데의 3부작을 통해 본 이산과 신자유주의」, 조돈문·임상래·이내영 편 『세계화와 라틴아메리카의 이주와 이민』, 오름, 2005, pp. 329-359.
- Allende, Isabel, *Mi país inventado: un paseo nostálgico por Chile*, New York, NY: Rayo, 2003.
- Becerra R., Mauricio, “Se van los capataces y vuelve el patrón,” *El Ciudadano*, <http://www.elciudadano.cl/2010/01/18/se-van-los-capataces-y-vuelve-el-patron/>, 2010-01-18.
- Burbach, Roger, “Chile’s Social Earthquake,” *Global Alternatives*, <http://globalalternatives.net/node/112>.
- Cornejo, Andrés Figueroa, “Los planes de Piñera contra los intereses del pueblo chileno,” *Agencia Latinoamericana de Información*, <http://alainet.org/active/37430>, 2010-04-19.
- Garretón, Manuel Antonio (coordinador), *Cultura y desarrollo en Chile: dimensiones y perspectivas en el cambio de siglo*, Santiago: Editorial Andrés Bello, 2001.
- Larraín, Jorge, *Identidad chilena*, Santiago: LOM, 2001.
- Moulian, Tomás, *Chile actual: anatomía de un mito*, Santiago: LOM, 1997.
- Stevenson, Bret, “How Milton Friedman Saved Chile,” *The Wall Street Journal*,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48703411304575093572032665414.html>, 2010-03-01.
- Subercaseaux, Bernardo, *Chile, ¿un país moderno?*, Santiago: Ediciones B, 1996.
- Universidad Andina Simón Bolívar, *Historia de América Andina, Vol. 5 Creación de las repúblicas y formación de la nación*, Quito: Editorial Ecuador F.B.T. Cía. Ltda, 2003.
- Villalobos-Ruminott, Sergio, “Modernidad y dictadura en Chile: la producción de un relato excepcional,” *A Contra Corriente*, Vol. 6, No. 1, Fall, 2008, pp. 15-49.